



보도자료

2012.10.05(금)

국회의원
김영우
(포천시·연천군)

(우) 487-800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8-8호 3층 Tel:031-533-0700 / Fax:031-533-0791
(우) 486-903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302-18 Tel:031-832-8855 / Fax:031-832-8866
(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27호 Tel:02-784-1521 / Fax:02-788-0141

1) 해외 한국문화원의 독도홍보 미흡

-최근 3년간 총 461회의 전시회 중 독도주제 전시회는 단 3회에 불과

2) 독도 해외홍보비 일본의 1/4도 안돼

-일본은 약 8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나, 우리는 19억원에 불과

1) 외교통상부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독도홍보활동이 그동안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은 19개국 24개소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최근 3년간 전시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61차례의 전시회 중 독도를 주제로 한 전시회는 단 3차례에 불과했으며, 비율로는 0.65%라고 밝혔다.

주미국 LA 한국문화원, 주독일 한국문화원,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세 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한국문화원은 최근 3년간 독도를 홍보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영우 의원은 “재외공관이 주재국 정부관계자와 언론을 상대로 독도 홍보를 한다면,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은 주재국 일반대중을 상대로 독도홍보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며 “독도를 둘러싼 해외 홍보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문화원도 독도관련 전시회 등을 통해 독도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일본 정부가 2013년 독도관련 예산으로, 매년 배정되던 약 3억원 외에 독도 해외 홍보를 위해 6억엔(약 84억원)을 추가 배정하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독도 해외홍보비 19억원을 포함해 총 42억원의 독도관련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예산안대로라면 일본은 약 84억원을 해외홍보비로 사용할 예정인데, 우리는 19

억원만 독도 해외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일본의 1/4도 안되는 독도 해외홍보비로 일본의 억지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독도 해외홍보비의 대폭 증액을 주장”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과의 해외여론전에서 승리하려면 SNS를 활용한 독도 홍보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이버외교사절단인 반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최근 3년간 해외 한국문화원의 전시회 개최현황

< 최근 3년간 해외 한국문화원의 전시회 개최현황 >

해외 한국문화원	전시회 개최	독도주제 전시회	비고(전시회명)
주일본(동경)	29회	0회	
주일본(오사카)	31회	0회	
주중국(북경)	54회	0회	
주중국(상해)	32회	0회	
주미국(워싱턴)	22회	0회	
주미국(뉴욕)	18회	0회	
주미국(LA)	59회	1회(2012.2.10-2.23)	<독도! 그 민족혼>
주필리핀	4회	0회	
주베트남	18회	0회	
주인도네시아	28회	1회(2011.7.7-7.8)	<독도 사진전>
주카자흐스탄	2회	0회	
주호주	4회	0회	
주아르헨티나	40회	0회	
주멕시코	4회	0회	
주러시아	8회	0회	
주프랑스	30회	0회	
주독일	34회	1회(2011.10.6)	<아! 독도>
주영국	19회	0회	
주스페인	8회	0회	
주폴란드	9회	0회	
주헝가리	5회	0회	
주나이지리아	3회	0회	
합계	총 461회	총 3회	0.65%

※ 최근에 개원한 주터키 한국문화원은 개최한 전시회 없음